제주 주택 매매 끊기고 미분양 역대 최대

1월 매매거래량 444호로 12년 만에 가장 적어 미분양 주택은 1780호로 1년 전보다 83.7% ↑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바짝 얼어붙 으며 매매거래량이 12년여만에 최 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매매거래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은 몇 달 사이 에 연이어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 는데, 고금리에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리며 분양경기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 로 나타났다. 와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월 도내 주택매매거래량은 444호(제주시 299호, 서귀포시 145 호)로, 2010년 9월(395호) 이후 12

년 4개월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대비 46.2% 감소했고, 최근 5년 평균 1월 거래량에 견줘 서도 50.6% 줄어든 규모다.

1월 매매거래된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132호로 가장 많 았고 아파트 120호, 다세대주택 101 호, 단독주택 88호, 다가구주택 3호

도내 주택 매매거래 위축은 매도 자도 매수자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다. 2021년부터 전례없 이 급등하기 시작한 주택가격은 지

난해 정점을 찍은 후 고금리가 본 격화되면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 는데 당장 급하지 않은 매도인들은 다시 상승 전환을 기대하며 버티는 분위기다. 무주택자 등 매수층에선 여전히 제주 집값이 비싸 살 여력 이 부족한데다 금리 부담이 크고,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에 관망세 가 뚜렷하다.

이처럼 매매거래가 위축된 대신 주택 수요는 전월세로 쏠려 1월 한 달간 거래량이 2051호로 매매거래 량의 4.5배가 넘었다. 최근 5년 평 균 1월 전월세 거래량에 견줘 38.2 % 증가한 규모다.

주택 매매거래 절벽으로 미분양 주택은 연달아 최대치를 경신중이

다. 1월 도내 미분양주택은 1780호 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전월 (1676호) 대비 6.2% 증가하며 이전 최대였던 지난해 10월(1722호)의 수치를 석달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2022년 1월(969호)에 견줘서도 83.7% 급증했다. 미분양 중 준공후 미분양은 698호로 전월보다 4.5% 늘었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도내 미 분양의 상당수는 읍면 지역에 몰려 있는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며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수요층에선 집값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게 돼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민족종교 독립운동가 인정하고 서훈 추진하라"

제주독립운동가 서훈추천위원회 (이하 서훈추천위)는 지난달 28일 정부제주지방종합청사 앞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민족종교 독립운동 을 사이비 종교인으로 바라보는 시 선은 바로 잡혀야 하며 독립운동 서훈 심사가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 으로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서훈추천위는 기자회견문을 통 해 "일제는 조선총독부 방침에 의 해 불교와 기독교는 식민통치에 방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로 인정하고 민족해방과 조국 독립을 희구하는 동학, 천도교, 증산교(보 천교), 대종교 등 모든 민족종교는 사이비 종교로 치부해 탄압의 대상 으로 삼았다"며 "제주의 민족종교 독립운동은 증산을 따르던 분들이 중심이 됐고 그 신도들은 보천교로 이어오다 1936년 '무극대도'라는 이름으로 1940년에는 '미륵교'라 오늘부터 반짝 꽃샘추위 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훈추천위는 "무극대도 활동이 독립운동이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 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건 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많은 학자들 강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이 독립운동임을 주장했다"고 강조 했다. 김도영기자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사고 늘었다

작년 14명 다쳐 전년보다 57% 증가…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여전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에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한해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 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에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상 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 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된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으로, 2019년 김민식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시행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쿨존에서 14건의 교통사고 가 발생해 어린이 14명이 다쳤다. 이는 전년(8건·8명 부상)보다 57% 늘어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 사고도 끊 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지 않았다. 지난해 도내에서 16 건의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나 1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년(18건·23명)보다 인명 피해와 사 고 건수가 줄긴 했지만 2년 전 도 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5 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나 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 존에서 운전자가 30km 이상 운행하 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 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 고 있다.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 소 홀로 만 12세 미만 아동이 사망하 는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벌금 수준도 500만~3000만원으로 다른 교통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하다.

제주경찰청은 각급 학교가 개학 을 맞이 함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 린이 보행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안전 의식을 높 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 전 9시 사이 학교 주변 교차로와 보호구역에 경찰을 배치해 안전 지 도와 교통 지도에 나서는 한편, 사 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하교 시간대 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는 순찰차 등 경력을 집중 투입해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이상민기자

기온 하루 새 4~9℃ 하강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2일 다 낮은 6~11℃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기온이 전날보다 4~9℃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기 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아침최 상청은 이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저기온이 1~4℃까지 떨어지고 오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며 건 후 들면서 서서히 오르며 10~13℃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평년보다

3일에는 오전에 기온이 더 떨어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2일 제주해상에는 바람이 초 제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낮은 3~5℃, 낮 최고기온도 평년보 속 10~16m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 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제주범도민운동본부, 도청~일본총영사관 행진 시위

CPTPP 가입 저지 제주 범도민운 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청 앞 에서 '제주도민 및 전국 농·어민 생존권 사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 류 반대 전국대회'를 열고 '후쿠시 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 선언문'을 발표한 뒤 상여를 매고 제주일본총영사관까지 행진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 핵오 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고 비판했다. 높이며 욱일기를 찢고 불태우는 상 징 의식도 진행했다.

월 늦어도 7월에는 일본의 후쿠시 부에 동조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진행될 것 보이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일본은 핵 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

나 그 어떤 것도 검증된 것이 없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일본 어민과 국민들도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 히려 일본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 피해가 미미하다 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이러한 정부와 제 주도정의 행태는 제주도민과 국민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빠르면 4 들에게 치욕이나 다름없고 일본 정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영기자



모시는 글



지금은 병란 개벽기. 나와 가족의 질병을 물리치는

무병장수 선려화 치유수행

현재 지구촌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는 외중에 건강회복과 무병장수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증산도에서 도문에 전승되어온 '무병장수 선려화仙侶花 치유 수행법'을 공개 합니다.

『선려화仙侶花』는 삼신조화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빛의 꽃'으로 인간의 질병치유 및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충전시켜 건강회복과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오시어 '광명한 빛의 꽃, 우주 조화의 신선꽃'인 선려화仙侶花를 전수 받으시고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극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화선 문명 명상포럼 제주지부 드림

STB 상생방송과 유투브 라이브로 송출됩니다. 문의. 010-3927-7748, 010-6634-9330